하였다. 이 중 총 288명의 부문별 입선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시 · 도교육감상, 통일교육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수상작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작품집(운문 : 반쪽이의 꿈, 산문 : 몰다우 감상화의 다섯 번째 칸)을 발간하여 통일교육시범학교 등 각급 학교와 전국 11개 통일관, 시 ·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방송매체의 청소년 퀴즈프로그램(EBS '코리아 코리아', MBC '생방송 퀴즈가 좋다', KBS '도전 골든벨' 등)에 통일관련 문제 출제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개발 등 대학의 학술연구 진흥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4년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의 설립을 통해 각 대학 산하 통일문제연구소간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문적 교류를 지원해 왔다. 2004년도에는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동 협의회를 통한 단일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등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5개 단체(대학)로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였다. 이로써 관련단체의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심화 · 확대함과 동시에 통일교육과 관련한 보다 효용성 있는 정책연구자료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및 대북관 정립과 대학사회내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42여편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입선작인 우수상(2) 장려상(2) 등 총 4편에 대하여서는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논문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나.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정부는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즉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해소 및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비무장 지대를 가로질러 남북을 오가는 금강산 육로관광을 중심으로 '중 · 고교생 금강산 체험학습'을 처음 실시한 것이다.

중 · 고교생 금강산 체험학습은 겨울방학 기간('04.12.3~'05.2.27)을 이용하여 전국 중 · 고교생 등 2만여명이 참가하여 북녘 땅을 직접 보고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동 체험학습에 전국의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사 · 학생들과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소속 담당 장학사들을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경비전액을 지원하고, 청소년 행사에 상대적으로 참여기회가 적었던 장애우 · 대안학교 학생 등도 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동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가 추진한 「도전 통일벨」 퀴즈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1,000명의 학생들도 금강산 체험학습을 다녀옴으로써 온라인과 체험학습이 연계된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다. 사회통일교육 지원

(1)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동 협의회에는 2004년 12월 말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9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도에도 국고보조금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 경비 일부를 보전하여 회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보다 효율적인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2004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서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등 본부사업, 연구소사업, 여성 · 청소년 · 지역주민 · 시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사업, 정기 통

일강좌, 통일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정부는 통일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에 처음 설립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부산광역시(민족통일부산협의회) 및 광주광역시(통일교육전문위원광주협의회)에 지정 · 운영 되었다. 부산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중 · 고등학교 순회교육, 통일기행 현장체험, 한마음통일문화축제, 여성이 만드는 통일세상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광주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빛고을통일학교, 청소년 분단현장체험, 중 · 고등학교 순회교육, 빛고을통일문화축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4년 말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을 법제화하여 그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

2004.12.31 현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동신대 동북아통일연구소	동학민족통일회
경실련통일협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문화교류재단
남북사회문화연구소	북방문제연구소	부산여성회
다물민족연구소	세계평화여성연합	북한연구소
대한민국팔각회	굿네이버스	부천시민센터
대한 YMCA 연합회	여성사회교육원	북한문제연구협의회
민족통일촉진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천시민연합	좋은 벗들	세계평화청년연합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통일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통일경모회	한국가족문화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시대충북연대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열린사회시민연합	통일기념사업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여성안보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건국민족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통일교육문화원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통일민주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문제연구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평화통일복지협의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청년회의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한국자유총연맹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민족통일촉진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민족복지재단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통일철학회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한국통일진흥원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남북소년교류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대한기독교자유연맹	

【 2004년도 지역통일교육센터(부산 · 광주) 사업실적 】

구 분	사 업 명	기 간	추 진 실 적
부 산	○ 중 · 고등학교 순회통일교육	7.12~12.16	20회 9,409명
	○ 통일기행 현장체험 교육	7.13~12.18	15회 602명
	○ 한마음 통일문화 축제		
	–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10.28	대학생 180명 참석
	– 탈북예술인 초청공연	10.27	지역주민 등 400명 관람
	– 북한미술 · 공예품 전시회 및 북한영화상영	10.25~31	지역주민 등 600명 관람
	○ 여성이 만드는 통일세상 (통일문예백일장)	10.27	주부 300명 참가
	○ 찾아가는 통일강좌	7.26~12.14	20회 2,160명
	○ 통일아카데미	7.30~11.30	96명 교육수료
	○ 통일문제 시민포럼	12.21	대학교수 등 200명 참석
	○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2.16	중 · 고등학교 교사 200명 참석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 보고회	12.23	사업추진 관련자 30명 참석
	○ 금강산 통일기행 체험연수	12.24~26	통일문예백일장 입상자 등 50명
광 주	○ 빛고을 통일학교	7.16~12.8	203명 교육수료 및 판문점 견학
	○ 청소년 분단현장 체험교육(금강산)	8.11~13	초 · 중 · 고생 33명 참가
	○ 중 · 고등학교 순회통일교육	9.6~10.11	20회 6,471명
	○ 빛고을 통일문화 축제		
	– 북한미술공예품전, 생활용품전, 북한 영화상영	9.10~11.13	지역주민 등 50만 여명 관람
	– 대학생 통일문제 세미나	9.21	대학생 250명 참석
	– 탈북예술단 초청공연	9.22	지역주민 등 600명 관람
	○ 대학생통일수련회	10.23/10.30	대학생 245명 참석
	○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포럼	11.19	시민 등 500명 참석
	○ 통일교육전문위원 초청연찬회	11.26	전국 시 · 도회장 등 40명 참석
	○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2.16	초등학교교사 250명 참석
	○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평가 보고회	12.21	사업추진 관련자 50명 참석

(3) 통일교육전문위원 활동 지원

정부는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4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49명의 전문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전문위원중 18명을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조직 창설 이후 최초로 대북식량차관 인도요원(16명) 및 대북비료지원 인도요원(2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전문인력의 충원, 조직운영 및 지원관리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통일관 운영 지원

통일관은 북한 · 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 등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북한관」을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홍보기능도 포괄하여 2004. 5. 25부터 「통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 광주, 인천 소재 통일관은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 통일관에 있는 분야별 북한 안내시스템(터치스크린)에 대한 프로그램 교체 등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반영한 전시패널 7종

전국통일관 분포현황(지도)

73개를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관이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 기획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적극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4

【 통일관 현황 】

2004.12.31 현재

분 야	위 치	개 관 일	운 영 기 관	전 시 내 역	휴 관 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92.9.8	동화진흥(주)	판넬: 50점 실물: 1,290점	월요일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판넬: 116점 실물: 797점	연중 무휴
인천	인천시 남구 숭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판넬: 60점 실물: 723점	월요일
광주	광주시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89.3.10	광주광역시	판넬: 100점 실물: 810점	월요일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우암어린이회관내)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판넬: 70점 실물: 801점	월요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주)	판넬: 48점 실물: 977점	일요일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6.15	통일전망대 (주)	판넬: 51점 실물: 677점	연중 무휴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판넬: 55점 실물: 671점	화요일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펀치볼지구)	'96.8.14	양구군청	판넬: 66점 실물: 870점	화요일
경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자유회관내)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판넬: 144점 실물: 938점	월요일
대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3-1 (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	'01.8.11	(지방공사)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판넬: 50점 실물: 247점	연중 무휴

년에는 총 460여만명의 국민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한편, 1991년 1월 개관 이래 (주)임진각에서 운영하던 '임진각 통일관'은 2004년 11월 30일 경기관광공사에 매각됨에 따라 폐관되었다.

라.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 대상별로 특성화된 통일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보급하고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들은 크게 통일교육 기본교재, 통일교육총서, 통일문제강좌, 영상교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04년도에 개발한 통일교육관련 기본교재는 「북한이해」와 「통일문제 이해」이며, 통일교육총서는 「북한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통일 · 남북관계사전」, 「갈등을 넘어 통일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등 4종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자 '통일문제강좌'를 기획하여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등 3종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영상시대에 부응하여 2004년에는 통일교육용 영상교재를 총 4종 제작하였다. 이 영상교재는 일반국민의 남북관계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통일교육에서 중등과정 도덕 사회과 수업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방북 예정자들을 위해 매년 그 내용을 수정하여 「북한방문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을 소개하는 안내 영상물과 안내 리플렛 등도 제작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보편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청각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 보급하고, 이를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컨텐츠와 연계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 2004년 주요 통일교육자료 발간 현황 】

성격	자 료 명	부수	형태	배포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이해	15,000	책	학교, 교육생,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북한이해	15,000	책	
통일 교육 총서	북한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0	책	
	통일 · 남북관계사전	3,000	책	
통일 교육 총서	갈등을 넘어 통일로	3,000	책	교육생,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 정부기관 등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1,000	책	
통일 문제 강좌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10,000	책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3,000	책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현실	3,000	책	
영상 교재	남북관계발전사(38분) (대북정책설명자료)	2,000	비디오 CD	
	도덕 · 사회과 '통일단원'(25분)	3,000	비디오 CD	각급 학교, 시 · 도교육청
	청소년용 플래시애니메이션(25분) (북한체험기)	2,000	비디오 CD	
	통일교육 입교식용 영상물(9분) (나의 땅, 나의 하늘)	200	비디오 CD	내부용

(2) 통일 ·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워크숍 개최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매체의 통일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강산에서 EBS, K-TV, 국방홍보원 등의 통일 · 북한 관련 방송제작 관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앞으로 통일 · 북한 관련 방송제작진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공동제작, 제작된 영상물의 통일교육교재 활용 등 방송사와 통일교육원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4절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홍보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보를 위해 유관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 능동적으로 해외 정책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의식 고취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1.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

가. 고위정책협의회의 개최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 해결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미국(워싱턴)을 방문하여 파웰 국무장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외교 · 안보 분야 고위 인사들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 · 미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과

한·미 고위 정책협의 회의

의 면담 및 토론을 통해 남북관계 현황 및 북한정세와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지지의 폭을 확대, 심화시켰다.

방미 기간동안 U.S. Institute of Peace 주최 한반도문제 전문가 대상 설명회(9. 1), Washington Post 와의 인터뷰(9.1) 등을 통하여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북한의 변화환경 조성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북한의 변화실태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NSC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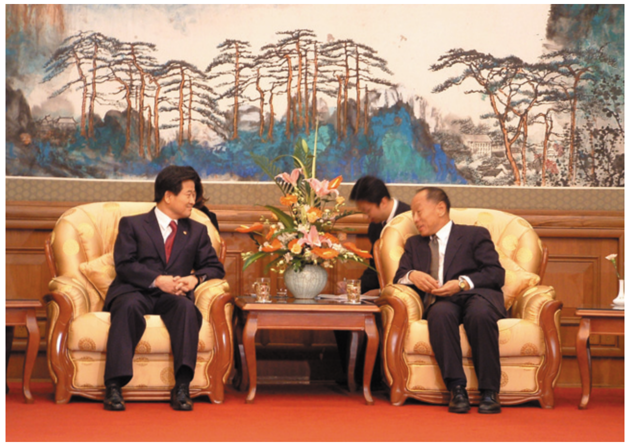
특사는 방중기간(12.21~24) 동안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예방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정상간 축적한 한·중 우호협력관계 심화 방안과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한·중간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탕자쉬엔(唐家璇) 국무위원,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 등 고위인사들을 만나 북핵문제, 한중관계, 남북관계 등 주요 관심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중 양측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핵 해결 「3원칙」(①북핵불용, ②평화적 해결, ③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를 제고시켰으며, 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관국들의 유연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특사는 방중 기간중인 12월 22일 북경대학교에서 400여명의 교수·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조건식 통일부 차관은 2004년 6월 7일 부터 6월 10일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G. Wewer 연방내무부 차관, I. Gleick 연방건설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독일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동독지역 재건노력 등을 청취한 후 북핵문제 해결 및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정동영 특사와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 면담

이어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국을 방문하여 주요 정계 인사들과 면담 및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토론 참가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Otto Schily 독일 연방내무부 장관을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초청하여 고위정책협의를 갖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독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독일통일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서 독일통일로 중단되었던 한·독 고위정책협의를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적실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한층 양호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나. 양자 및 다자회의 참석

통일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경에서 열린 제2차 6자회담(2.24~28)과 제3차 6자회담(6.20~27) 및 제1차 실무그룹회의(5.10~17)에 참석하여 북핵 불용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을 통한 안보위기의 재발 방지 등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

였다.

또한 한 · 미고위관리회의(1.17~19), 제15차 NEACD(4.4~6), 한 · 러 실무정책협의(6.14~16), 한 · 미 · 일 3자협의(9.9~10)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북아 평화협력 문제와 관련한 양자 및 다자회의에 참가하여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과 정책협의 · 조율의 기회를 가졌다.

2. 국제 네트워크 강화

가. 방한 · 주한외국인 대상 대북정책 설명 및 네트워크 구축

주요 방한인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2004년에 통일부를 방문한 외국의 주요 고위 정부인사로는 Goran Persson 스웨덴 총리(3.10), Cimoszewicz 폴란드 외교장관(8.23), Colin Powell 미국 국무장관(10.26),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11.6) 등이 있다.

정당 의회와 주요 국제기구 · 연구기관 인사로는 Antje Vollmer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4.16), Maurice Strong UN 사무총장 특별자문관(5.24), 류훙차이(劉洪才)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6.21), G. Evans ICG 대표(8.26), E. Feulner 헤리티지재단 회장(8.27), Frangialli WTO 사무총장(9.24), El Baradei IAEA 사무총장(10.5), 야마모또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10.7), Harmut Koschyk 한 · 독의원친선협회장(10.8), Morris WFP 사무총장(10.22), Kosachev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11.3), Jean Ping UN총회 의장(11.24), Jan Vidim 체크 의회 국방위원장(12.9) 등이 있다.

또한 주요 남북회담 개최 직후에 미 · 일 · 중 · 러 등 주변 4국 공관장을 대상으로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으며, 주한 EU회원국 대사 및 주요 주한 외교사절을 면담하여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했다.

한편 통일부는 입법부 차원의 국제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주요 국가의 지지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제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다. 유선호 의원을 단장으로 김원웅 · 김학원 · 이성권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들은 2004년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체크 · 헝가리 · 독일 등 3개국을 방문하여 의회대표, 각계 유력인사, 연구기관 대표, 전문가 등과 면담을 갖고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나. 통일주재관 운용

정부는 독일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5일 독일주재 통일연구관을 파견한 후, 1996년 8월부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 · 일 · 중 3개국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2004년도에 통일주재관들은 주재국 정부 의회 및 주요 한반도문제 관련 연구소와 교류하면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주재국들의 이해와 지지 확산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장과 견해를 파악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현지에서의 당국간 남북대화와 민간급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현지 상담창구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통일주재관들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통일주재관회의를 개최하였다.

3. 해외 정책홍보 확대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도에 미 · 일 · 중 3개국의 주요 대학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10월 21일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주최 국제워크숍에서는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12월 2일 미국 Columbia 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정세 및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12월 18일 베이징(北京)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정신과 내용 및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현황 】

2004.12.31 현재

지 역	기 관	일 자	주 제
일본(동경)	게이오대학	10.21	미 대선이후 한반도정세 전망
미국(뉴욕)	콜롬비아대학	12.2~3	동북아정세 및 한반도의 평화번영
중국(북경)	베이징대학	12.18~19	변동중의 동북아 역내 안보

통일부는 한 · 미안보포럼(3.9~12, 미국 워싱턴), 동아시아 전략포럼(3.19~21, 미국 시애틀), 한 · 미 여론지도층 세미나(7.16~17, 미국 워싱턴),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세미나(10.22~23, 중국 북경), 한 · 중통일포럼(12.20, 중국 상해)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에 참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한반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Moody's, Fitch,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 방한 경제계 인사 및 KEDO 등 국제기구 인사에 대한 설명 활동도 전개하여 한반도 상황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 ·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무관계자들이 워싱턴포스트지, 일본 아사히신문 등 다양한 해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55회) 등을 통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통일부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2004년 8월에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평화와 번영의 길」(「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CD 및 소책자를 영어로 총 1,000부를 발간하였고, 12월에는 영문판 「The Road to Peace and Prosperity」 1,000부를 추가 발간하였다.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Korean Unification Newsletter」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과 최근 남북관계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일한국」을 재외동포 사회에, 남북평화통일연구소가 출판하는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 연구기관, 한반도문제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였다.

【 민간단체 발간 해외홍보자료 배포 현황 】

2004.12.31 현재

기 관 명	연 도	간 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1989~현재	월 간	통일한국	매호 1,1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1981~현재	계 간	Korea and World Affairs	매호 2,100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4.12.31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 고
정기(월간)	1998~'03.6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 2,000	영어
정기(주간)	'03.7~현재	뉴스레터(e-mail)	Korean Unification Newsletter	1,200여곳	영어
부정기	2002.5 (한 일 월드컵 축구대회 계기)	팜플렛	Sunshine Policy for Peace & Cooperation	10,000	영어
			太陽政策– 平和と協力のために	5,000	일어
			陽光政策爲了和平與合作	5,000	중어
	2002.9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계기)	리플렛	Sunshine Policy for Peace & Cooperation	10,000	영어
			平和と協力を目指す太陽政策	5,000	일어
			追求和平與合作的陽光政策	5,000	중어
	2003.2	책자	Promoting Peace and Cooperation	300	영어
			平和と 協力の 實踐	200	일어
	2003.3 (새 정부 출범 계기)	소책자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10,000	영어
			盧武鉉政府の 平和繁榮政策	2,000	일어
			盧武鉉政府的和平繁榮政策	1,000	중어
	2003.12	소책자(수정판)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8,000	영어
	2004. 8	CD, 소책자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1,000	영어
	2004.12	소책자(수정판)	The Road to Peace and Prosperity	1,000	영어

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홍보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은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지지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 형성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6월 1일에는 「2004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6월 11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 · 영국 · 미국 · 독일 · 스웨덴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재외동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미주지역 통일포럼을 워싱턴(11.30)과 뉴욕(12.1)에서 각각 갖고 남북관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 ·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신문 · 방송사 10개처에 「통일칼럼」을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무궁화 문학콩클」 등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현지 대학 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을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현황 】

2004.12.31 현재

구 분	개 최 일	장 소	참 가 인 원	대 주 제
제1차	1991.9.13	서 울	15개국(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1992.8.18~19	러시아 사할린	11개국(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1993.9.20~23	서 울	17개국(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1994.8.5~7	중국 연변	10개국(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1995.8.16~17	서 울	14개국(650명)	통일 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1996.11.21~23	일본 도쿄	13개국(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1997.9.5~6	서 울	16개국(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1998.8.1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개국(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1999.10.1	서 울	6개국(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제10차	2000.6.17	독일 베를린	23개국(140명)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제11차	2001.5.24	서울	6개국(230명)	6 ·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제12차	2002.7.4	일본 도쿄	5개국(170명)	한반도 평화 협력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13차	2003.11.18	호주 시드니	5개국(130명)	평화번영정책과 해외동포의 역할
제14차	2004. 6.11	영국 런던	5개국(80명)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1. 북한 정보자료 제공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변화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전망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4년도에는 정치 · 외교 · 경제 · 사회 · 대남 등 전 분야에 걸쳐 700여건의 내부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 · 공급하여 대북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하였다.

한편, 계기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각종 회의 등을 수시 개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북한에 대한 분석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주간북한동향」 등 각종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북한문제 연구기관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문제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지원 뿐 만 아니라 북한실상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2004년에도 북한의 정세변화의 추이와 분야별 동향을 시의성 있게 분석 평가한 「주간북한동향」을 676호부터 723호까지 매주 발간(48회)하였다. 동 자료는 유관기관과 통일관련 연구기관,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학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해 오고 있다.

2003년 12월에 발간한 「2004 북한개요」는 정치 · 군사 · 외교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북한의 전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분석 · 평가 자료와 북한 원전 자료를 활용, 북한실상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개요는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서점에서 시판 중(9,000원)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 조치('02.7.1)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각 분야별 「북한 변화동향」을 종합 발간하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실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 · 정 · 군 등 기관 단체들의 조직 및 인물들의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를 발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하였고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하여 도표화한 「2005년도 북한주요행사예정표」도 발간 · 배포하였다.

북한자료 센터

또한 최근 북한경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의 북한경제 관련 동향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한 「2004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를 발간 · 배포하였다.

한편,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신진 연구자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총420여명)

2004년도 신진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비무장지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 분석 등 통일정책 관련 연구 8건, 김정일 체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로에 관한 연구 등 북한실태 관련 연구 8건, 기타 통일교육 관련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등이 있었다.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신진 연구자 논문집(1질: 3권)으로 발간, 전국 도서관 · 자료실 등에 배포(300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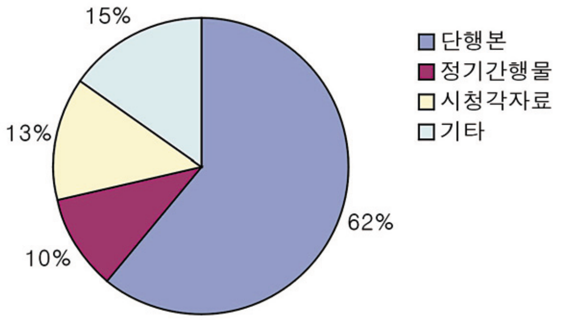
2.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 ·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6층에 소재한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수집 · 관리 · 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3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화일자료 4천 4백여 건, 시청각자료 6천 2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4천여 건 등 총 8만9천여 건을 보유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 자료 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북한 원전 자료 보유 현황 】

종 류	자 료 건 수
단행본	17,583
정기간행물	3,014
시청각자료	3,838
기 타	4,406
계	28,841



또한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1989년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

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4년 한 해 19회가 개최되는 동안 1,390명이 참가하였으며, 1989년 이후 2004년 12월말까지 총 335회의 북한실상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2만 3천 7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예술영화, 아동영화 등 북한 영화 2,000여 편을 소장,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북한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해 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의 5개 지방도시의 통일관으로 확대하여 상영해 오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531회 9만 4천여 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총 관람객은 3,556회 60여만 명에 이른다.

「북한자료센터」는 1998년부터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에 대한 심의를 총 254회 33,387건 하였으며, 1999년 12월에 통일부 소장 비이념성 북한자료 5천여 권을 일반자료로 공개하였다. 2003년에는 특수자료취급인가증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이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2004년도에는 대외적으로 국회도서관,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정보자료 교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체결기관간 북한자료 이용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 왔으며, 대내적으로 「북한자료센터」서고를 부분적으로 개가제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서고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자료 공개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998년에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 go.kr)를 개설,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10만 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장정보 및 원문을 제공,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북한영화 소개」 코너를 신설, 북한영화의 줄거리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 코너를 통해 북한교과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실상 체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10월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로 일반 국민들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젼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TV의 시간대별 방송 내용을 알 수 있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북한정보자료의 지속적 개방 확대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에서 영상자료를 포함한 모든 북한 원전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부와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해서는 북한자료의 대출과 복사까지도 대폭적으로 허용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수자료」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북한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1. 혁신비전과 전략

가. 혁신비전 제시

통일부는 4차례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통일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업무혁신을 위해 '04년 2월 정부 부처중 가장 먼저 혁신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혁신로드맵에서는 향후 3년내 변화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통일부의 미래상으로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 라는 혁신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어 상반기 혁신업무 추진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혁신 비전으로 일류 · 지식 · 열린 통일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일류 통일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통일외교안보분야 책임부처이자 NSC 상임위원장 부처로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외교 · 안보분야의 업무를 종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부는 일류 통일부가 되어야 하며, 일류 통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와 조직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지식 통일부」를 지향하고 있다. 일류 통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전문가 감각을 키우고, 창의적인 전략을 생산할 수 있는 간부라는 자세로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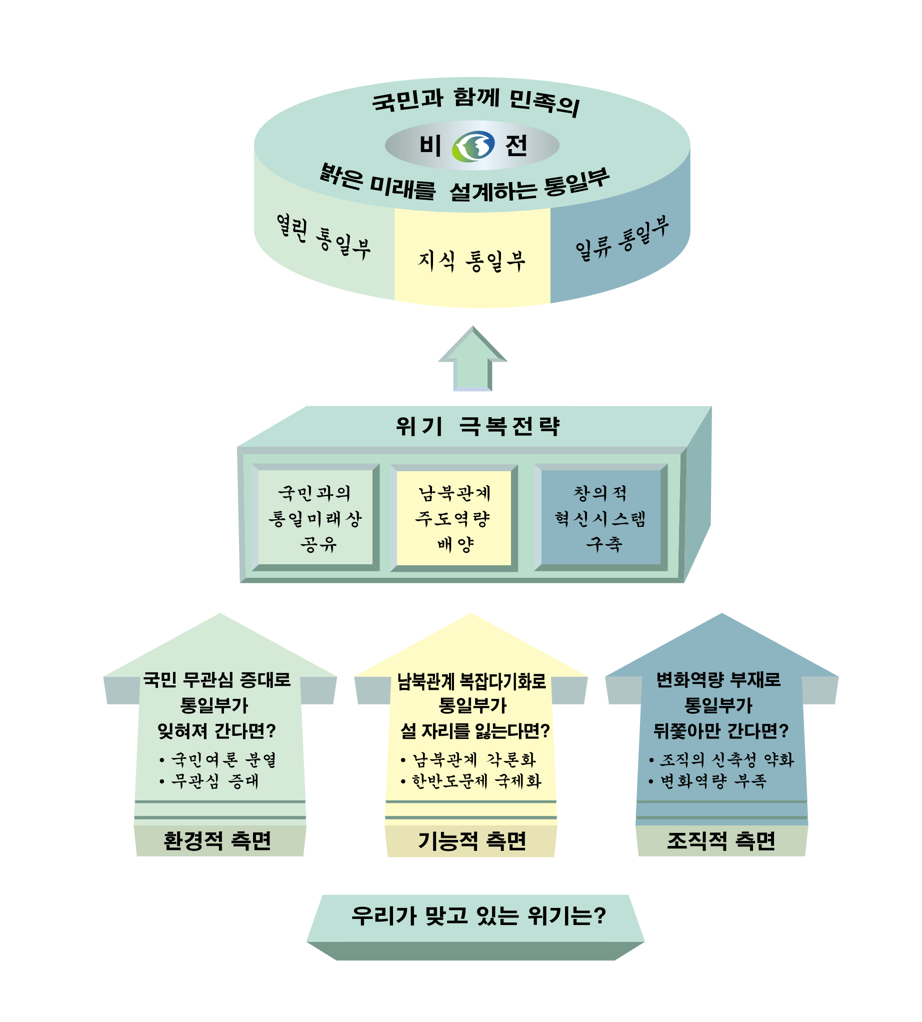
셋째로 「열린 통일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부 직원 모두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통일부는 정책부처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열린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협조에서도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나. 혁신전략과 과제

혁신로드맵을 통해 진단한 우리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통일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저하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의 통일미래상 공유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

【 통일부 혁신비전과 전략 】



신과제는 '자녀학교 · 모교 1일 통일교사 실시' 등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등 남북문제가 복잡 · 다기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관계 진전과정에서의 주도적 역량 배양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혁신과제로 해외 한반도문제 전문가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셋째, 조직 차원의 변화와 전문성의 요구라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 혁신을 위한 '창의적 혁신시스템 구축'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혁신과제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등 1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서 혁신로드맵을 보완하기 위해 3차례 혁신추진반회의를 거쳐 하반기 혁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4개 혁신분야 28개 과제를 추가하였다. 주요 혁신분야와 과제는 탈관료주의화를 위한 '장관과 정책고객과의 대화 실시' 등 8개 과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장관과 직원과의 정기대화' 등 5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7개 과제,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처간 워크샵 개최' 등 8개 과제였다.

그밖에도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내부 전산망인 e-Nala 게시판에 상시적인 혁신제안 · 토론방을 운영하고, 혁신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100여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우수제안을 혁신과제로 채택하는 등 혁신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 관리해 나가고 있다.

2. 통일업무 혁신인프라 구축

가. 창의적 혁신시스템 구축

통일업무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내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03년 4월에는 부서별 혁신팀(10개팀 총 62명)의 팀장이 참여하는 혁신추진반을 총 12명으로 구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17회에 걸쳐 혁신추진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혁신추진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기 위해 「혁신기사단(1, 2기)」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4년 10월 한 달을 '혁신

의 달'로 선정하고 통일업무 혁신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혁신추진점검반(1급 단장 등 12명)」을 구성 · 가동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의 자발적 혁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8월에는 「혁신연구모임」을 구성하여 12월말 현재 76명이 활동하고 있다.

통일업무 혁신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과 정책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지원체계도 구축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4년 9월에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의 혁신관리 전문가, NGO 관계자 등 정책고객 대표자, 통일업무 전문가 등 9명으로 「통일부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민원제도와 관련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교류협력분야에서는 남북경협 기업인 10명이 참여하는 「민원 · 제도개선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혁신참여 의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기진작 방안과 인사혁신과제도 병행 추진하였다. 불요불급한 대기, 승진적체, 경력중시 인사 · 평가 등 사기 저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휴일 국회 대기인력 최소화, 소속기관 재택당직 실시, 동해선 출입사무소 등 격오지 근무환경 개선, 어학실 설치, 하위직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직원 화합을 도모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가정의 날'(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신입직원 mentor제'를 도입하였고, 칭찬방 개설(9. 20) 및 칭찬주자 선정(매주)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직원 화합을 통한 일체감 조성'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들도 시행하였다. 인사관리시스템(PPSS)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승진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부내 직위공모 활성화, 정기인사, 타부처 인사교류 활성화 등의 조치도 시행하였다. 또한 업무성과와 혁신실적이 우수한 직원 3명에 대한 발탁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임용 확대를 통해 전문성도 제고하였다.

직원들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 · 보상체계를 수립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다.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경진대회 제안 등 각종 혁신활동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혁신스타'와 우수 혁신직원과 부서를 선발 · 포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확

대하였다. 혁신로드맵 과제 추진실태도 분기별로 평가하여 분기별 과제추진 우수자를 선정 · 포상하였다.

나아가 혁신활동과 업무추진 성과에 기초한 종합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유기적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여러가지 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전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10월 과장급 이상의 목표관리제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평가시스템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평가체계에는 혁신실적과 함께 주요정책 추진성과를 포함시킴으로써, 혁신활동 및 주요정책 추진성과를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마련으로 통일업무 혁신의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남북관계 주도역량 배양

전직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을 내면화 · 일상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직원의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어왔다. 연초 혁신로드맵 관련 전직원 워크샵(4회),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 초청특강(1월), 정보화 마인드 제고 워크샵(3월), 홍보마인드 제고 워크샵(6월), 도올 김용옥 초청특강(7월) 등을 실시하였다. 9월부터는 일하는 토요일을 「혁신학습의 날」로 지정하여 과장급 이상 직원, 부서별 혁신팀원, 부서별 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혁신워크샵과 부서간 합동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과장급이상 전체 간부가 참여한 혁신워크샵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하여 개최(12월)함으로써 간부들의 혁신마인드와 참여의지를 고취하였다.

아울러 전직원의 상시적 혁신참여 및 자발적 학습활동도 지원하여 왔다. 내부전산망인 e-NALA에 상시적인 「혁신제안 · 토론방」을 운영하고 매월 2회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혁신문고」를 설치하고 「혁신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혁신연구모임」 등 자발적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부내 부서간 · 직원간은 물론, 부처간 칸막이도 낮아지면서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먼저 부내 직원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토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간 2천여건의 지식을 신규로 등록하였고,

토론식 테마간부회의도 18회 개최하였다. 아울러, 부서간 벽('칸막이 문화')을 허물기 위해 현안별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왔다. 2004년말 현재 18개 TF를 운영하여 혁신과제 추진 및 정책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TF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관리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통일부 간부 혁신워크샵

또한 부서간 합동 혁신워크샵(3회)을 통해 부서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전직원이 참여하는 수다회, 부서별 「호프데이」 등의 대화의 장도 마련하여 부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 · 외교 · 안보 부처 간부연찬회를 개최(2회)하여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4년 9월 통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타부처 협조 업무의 최우선적 처리를 위해 2004년 11월 「통일부 협조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 시행하였다. 또한 12월에는 국회도서관과 '전자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대북정책추진의 지식기반을 확충하였다

다. 국민과의 통일미래상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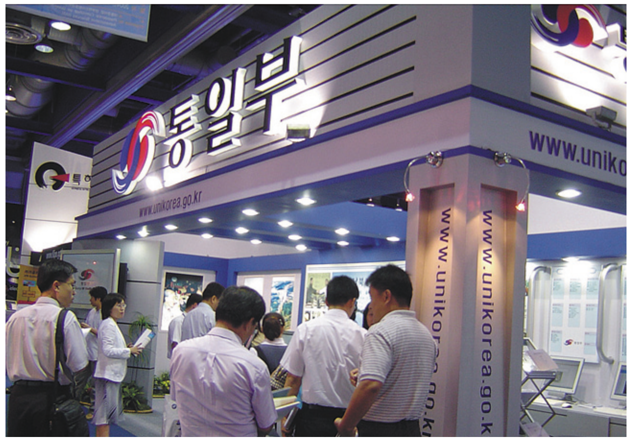
혁신로드맵상 추진전략의 하나인 국민과의 통일미래상 공유를 위하여 통일부는 찾아가는 통일홍보와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연초에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정책참여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해 오던 '열린 통일포럼'을 지역별 · 직능별로

6회 개최하고,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를 3회 개최함으로써 장관이 국민을 직접 찾아가 남북관계 현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밖에도 국민들의 대북정책 참여 채널을 확대하여 통일정책 국민모니터링단 100명과 통일서포터즈 100명을 모집하였으며, 인터넷 전자공청회도 3회 개최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통일홍보를 위해 '자녀학교 · 모교 1일통일교사' 활동에 총 25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학교 통일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4년 한 해동안 통일부는 고객중심의 정책 · 민원서비스를 추진하여 통일업무 서비스의 질을 크게 제고하였다. 통일업무에 있어 '탈관료주의'를 혁신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결과, 직원들의 업무자세가 점차 고객중심으로 바뀌어 정책품질도 크게 향상되고, 정책과정에 민간전문가 및 정책고객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적극적 서비스마인드' 등을 강조하고 현장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업무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교류협력시스템(2차) 구축, 협력기금제도 개선 등 14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크게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내 직원들의 대국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례적 민원만족도 모니터링, 남북경협상담센터 설치(9월) 등의 혁신과제도 추진하여 민원만족도를 한층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업무평가에서 우리부는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최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통일부의 혁신 성과와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노력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2004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국내외 인사들에게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업무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